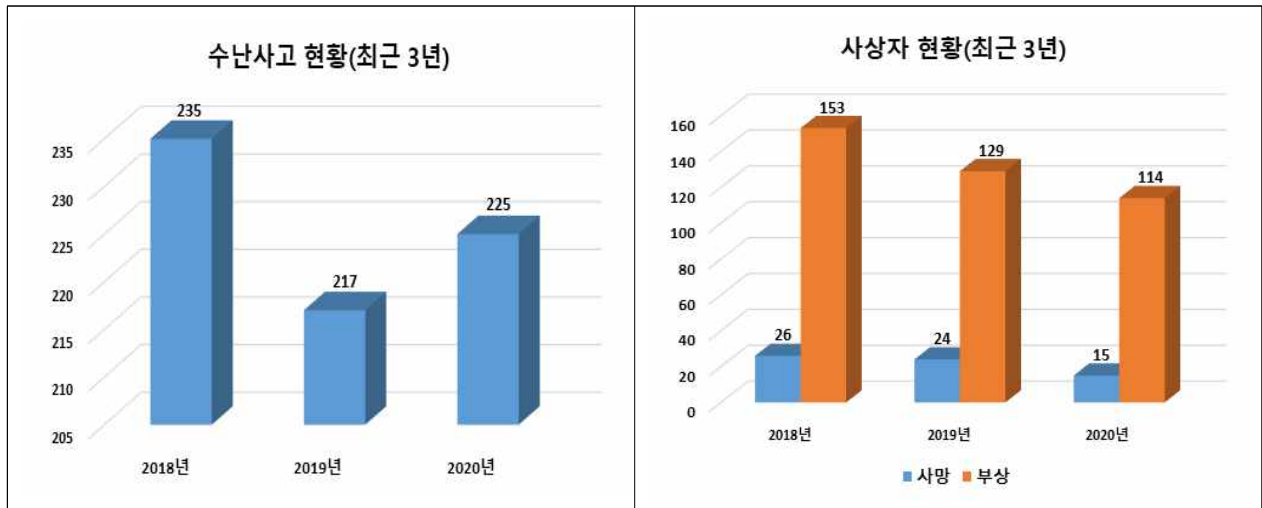


6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= 여름철 수난사고 안전 주의보 =

□ 수난사고 현황(최근 3년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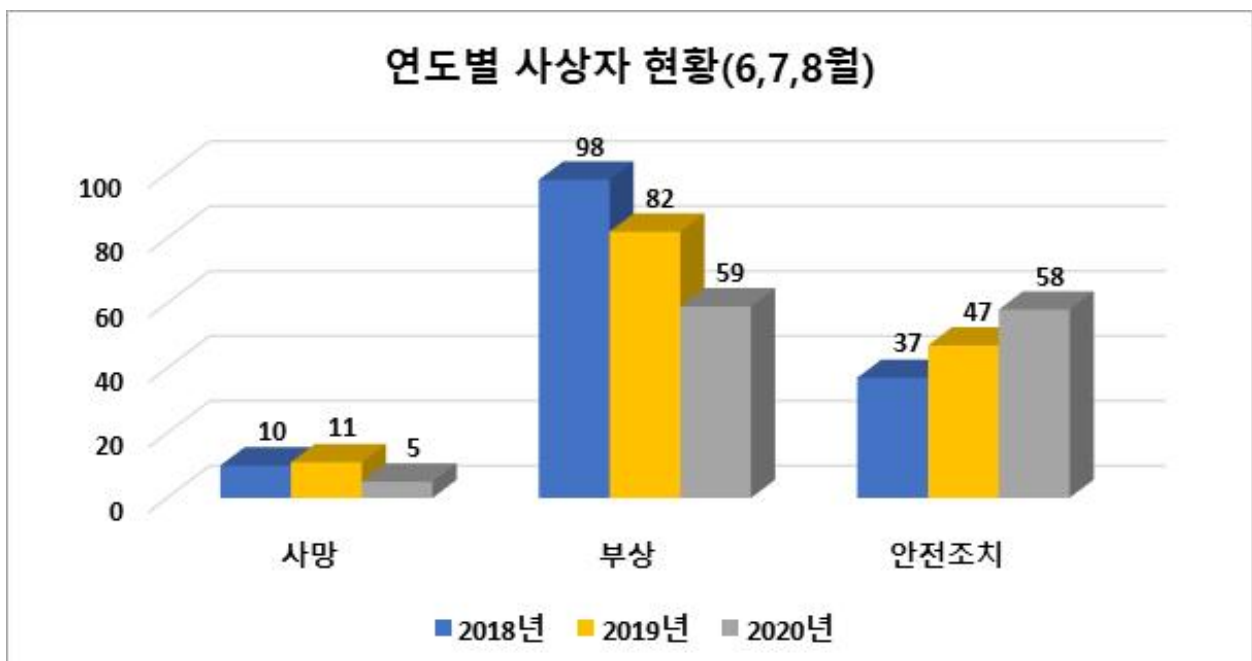
- 최근 3년('18 ~ '20년)간 발생한 전체 수난 사고는 677건 발생하였으며, 사상자는 461명으로 사망 65명, 부상 396명, 안전조치 216명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- 사고원인은 수영미숙이 237건(35%)으로 가장 많았고, 부주의 68건(10%), 자살시도 67건(10%), 음주 59건(9%), 레저활동 40건(6%), 추락·파도 휩쓸림 33건(5%), 고립 17건(3%), 다이빙 15건(2%), 다슬기 채취 8건(1%), 급류 2건, 기타 98건(사체인양 등)에 달했다.
- 사고 장소별로 분석하면 바다에서 발생한 경우가 405건(60%)으로 가장 많았고, 강 117건(17%), 하천 66건(10%), 계곡 64건(9%), 수영장 15건(2%), 기타 10건(1%)으로 나타났다.
- 강원도는 산과 계곡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청정지역으로 매년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이 찾는 곳이지만 물놀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.

6~8월 중 수난사고 현황 분석 (최근 3년)

□ 수난사고 발생현황

| 연도별 | 구조건수(명) | | | |
|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--|
| | 계 | 사망 | 부상 | 안전조치 |
| 계 | 407 | 26 | 239 | 142 |
| 2018 | 145 | 10 | 98 | 37 |
| 2019 | 140 | 11 | 82 | 47 |
| 2020 | 122 | 5 | 59 | 58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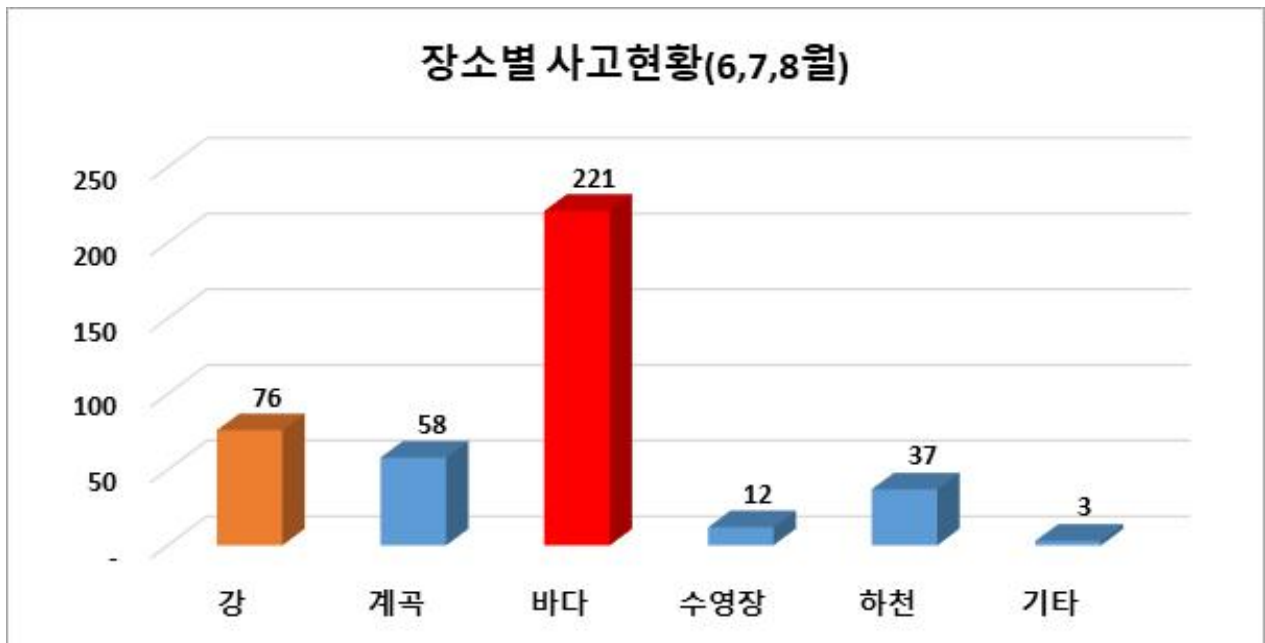
- 최근 3년간('18 ~ '20년) 6월 ~ 8월에 발생한 수난사고는 407건에 265명(사망 26, 부상 239)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6월부터 수난사고가 증가하므로 수난사고에 대비한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.
- '20년에는 사망자가 5명으로 '19년 11명과 '18년 10명보다 줄었지만 수영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87건(46%)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 숙지 및 교육이 요구된다.



□ 주요장소별 분석

| 연도별 | 장소별 수난사고 현황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|----|
| | 계(명) | 강 | 계곡 | 바다 | 수영장 | 하천 | 기타 |
| 계 | 407 | 76 | 58 | 221 | 12 | 37 | 3 |
| 2018 | 145 | 18 | 32 | 65 | 7 | 23 | - |
| 2019 | 140 | 29 | 17 | 80 | 2 | 9 | 3 |
| 2020 | 122 | 29 | 9 | 76 | 3 | 5 | - |

- 주로 물놀이가 많은 바다에서 221건(54%)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며, 다음으로는 강 76건(19%), 계곡 58건(14%), 하천 37건(9%), 수영장 12건(3%), 기타 3건(1%) 등으로 나타남. 강원도는 해수욕장, 강, 계곡과 하천이 많아 외지 방문객에 의한 사고가 주된 사고 대상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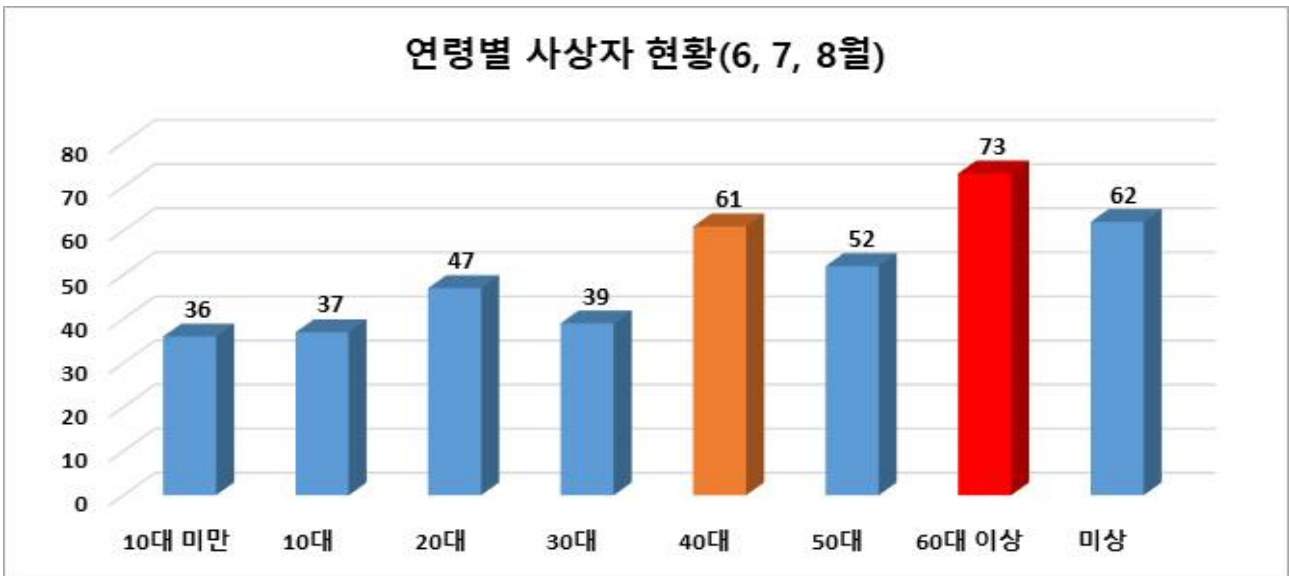


□ 사고원인 및 연령별 분석

- 사고원인에 따른 인명피해 분포는 전체 407건 중 수영미숙 187건(46%), 음주 33건(8%), 레저활동 28건(7%), 부주의 26건(6%), 파도 휩쓸림 25건(6%), 자살시도 20건(5%), 고립·다이빙 14건(3%), 추락·다슬기채취 8건(2%) 등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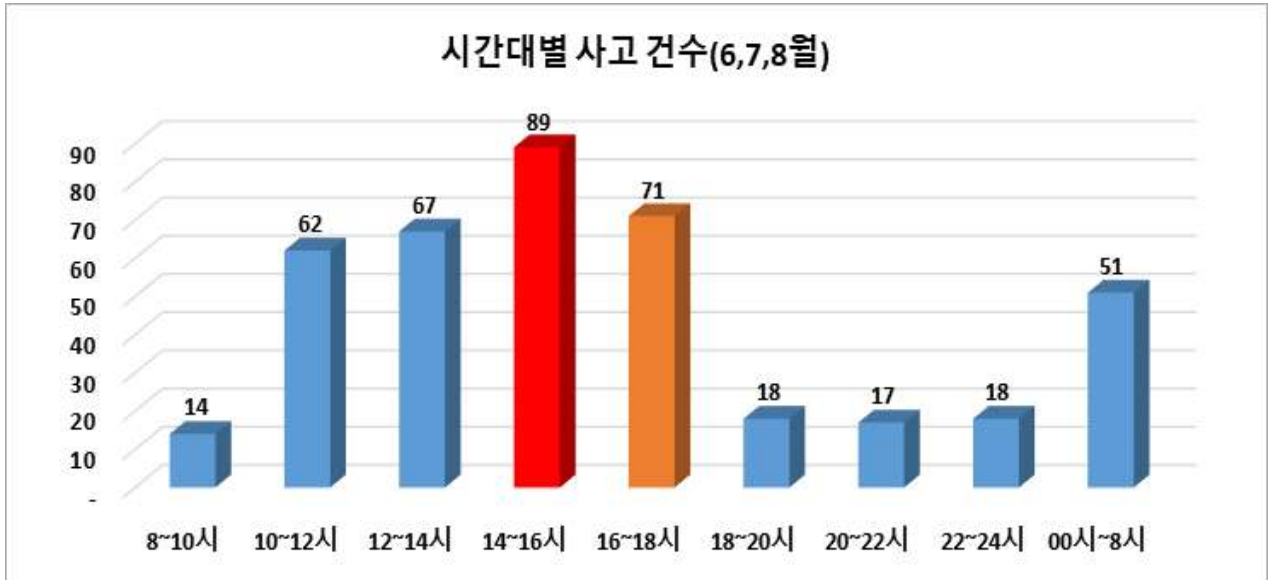


○ 연령대별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, 60대 이상 73건(18%), 40대 61건(15%), 50대 52건(13%), 20대 47건(12%), 30대 39건(10%), 10대 37건(9%), 10대 미만 36건(9%) 순이었으며, 10대는 학생들이 단체로 물놀이를 하다 수영미숙이나 안전부주의 등으로 사고를 많이 당하며,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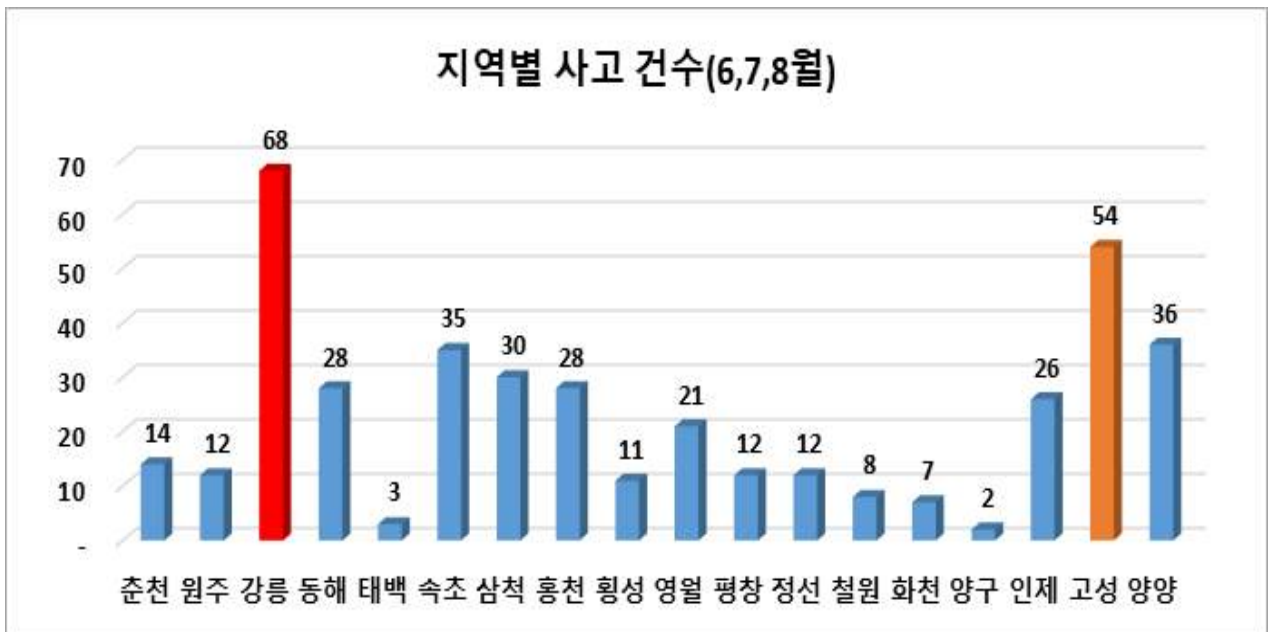


□ 지역별 및 시간대별 분석

○ 시간대별 발생건수는 14~16시 89건(22%), 16~18시 71건(17%), 12~14시 67건(16%), 10~12시 62건(15%), 0~8시 51건(13%), 18~20시 18건(4%), 22~24시 18건(4%), 20~22시 17건(4%), 8~10시 14건(3%)의 순으로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.



- 지역별로 인명피해는 강릉 68건(17%), 고성 54건(13%), 양양 36건(9%), 속초 35건(9%), 삼척 30건(7%), 홍천·동해 28건(7%), 인제 26건(6%), 영월 21건(5%), 춘천 14건(3%), 원주·평창·정선 12건(3%), 횡성 11건(3%), 철원 8건(2%), 화천 7건(2%), 태백 3건, 양구 2건 등의 순이었음.



- 올해에도 주요 물놀이 사고·위험지역 119구조대·구급대 전진배치 및 시민수상구조대 등 안전요원의 지도 및 적극적인 홍보에 의한 경각심 고취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
□ 물놀이 10대 안전수칙

- 수영하기 전에는 손,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.
-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(다리, 팔, 얼굴, 가슴 등의 순서)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.
-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.
-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.
-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.
-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.
-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(튜브, 스티로폼, 장대 등)을 이용하여 안전구조를 한다.
-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, 배가 고플 때,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.
-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,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.

□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사항

- 준비운동 후 물에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.
-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.
-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가지 않는다.
- 튜브, 공, 부유구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.
- 수영 중에 “살려 달라”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는다.
-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한다.
 - ※ 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피로를 느낀다.
-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채로 수영하지 않는다.(기도를 막아 질식위험)

□ 어린이 물놀이 활동 시 유의사항

-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.
- 거북이,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의 튜브나 보행기 등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 사용은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다.
- 보호자의 활동 범위 내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,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.
- 어린이 관련 수난사고는 어른들 부주의 및 감독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.
- 인지능력 및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보호자들이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한다.
-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~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 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 안전교육 및 주의를 주어 통제한다.

□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할 때 대처요령

- 체력소모가 적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수영한다.(긴장하면 체력소모가 발생한다)
- 머리는 언제나 수면 위에 내밀고 있어야 한다.
-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기보다는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한 경우도 있다.
-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.
-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들이마시고 중지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.
-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나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얕다. 또 색이 검은 곳은 깊고, 맑은 곳은 얕다.
-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, 조류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.
- 조류가 변할 때는 언제나 파도,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.
- 거센 파도에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한다.

□ 수초에 감겼을 때 대처요령

- 수초에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, 만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고 잠깐만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겁게 되므로 이때 털어 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.
- 놀라서 발버둥칠 경우 오히려 더 휘감겨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흡하며,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히 헤엄쳐 나온다.

□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을 때 대처요령

- 경련은 물이 차거나 근육이 피로할 때 가장 일어나기 쉽고, 수영 중 흔히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.
-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대퇴 부위에서도 발생하며,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을 하였을 때에는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.
-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의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(당황하여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.) 경련 부위를 주무른다. 특히 위 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요청을 한다.

□ 물을 건널 때 대처요령

하천이나 계곡 물을 건널 때

-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선정하여, 가급적 바닥을 끝듯이 이동하고, 시선은 건너편 강변 독을 바라보고 건너야 한다.
- 이동 방향에 돌이 있으면 가급적 피해서 간다.
- 물체를 이용하여 수심을 재면서 이동한다.(지팡이를 약간 상류 쪽에 짚는다)
-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되 물살이 셀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한다.

무릎 이상의 급류를 건널 때

- 건너편 하류 쪽으로 로프를 설치하고 한 사람씩 건넌다.
- 로프는 수면위로 설치한다. 로프가 없을 경우는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지탱하고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서서 건넌다.

□ 물에 빠졌을 때 대처요령

-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온다.
-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온다.

□ 침수 · 고립되었을 때 대처요령

침수지역에서의 행동

- 부유물 등을 이용하며, 특히 배수구나 하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.
- 도로 중앙지점을 이용 가급적 침수 반대방향이나 측면방향으로 이동한다.

고립지역에서의 행동

- 자기 체온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, 무리한 탈출 행동을 삼가한다.
-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 신호를 한다(옷이나 화염을 이용)
- 가능하다면 라디오나 방송을 청취하여 상황에 대처한다.

□ 보트를 탈 때 대처요령

- 보트를 탈 때에는 도크나 강변에 나란히 대놓고 안정시킨 상태에서 선미 쪽에서 양손으로 뱃전을 잡고 용골위의 바닥으로 발을 천천히 옮긴다.
- 배안에서 균형이 잡히면 중심을 낮춘 자세로 자리를 이동한다.
- 보트에서 내릴 때는 탈 때와 반대로 하고 뒷발이 배를 강 쪽으로 밀지 않도록 유의한다.
-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배를 붙잡아야 하고 잠시 휴식한 후 선미 쪽으로 돌아와서 몸을 솟구쳐 상체부터 올려놓는다.
- 모든 승선자는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한다.

□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 대처요령

-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고,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하며, 또한 낙석 및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.